

국회 부결... 장관 사의... 국민연금법 정계 뇌관 등장

노대통령 '기초연금법' 맞거부 할 듯

이달 초 무산된 국민연금법의 재개정 문제가 전망을 가능하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 법의 부속법안 성격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기초노령연금법(65세 이상 노인 60%에 평균소득액 5% 지급)만 통과돼 오�히려 연금 재정이 더욱 악화될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3년여 진통 끝에 보건복지부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열린우리당의 개정안과 한나라당 및 민주노동당이 즉석에서 공동발의한 수정안 등 2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이처럼 '혹 때라다 혹 불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빚은 정치권에 대해 비난 여론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권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입기 중 연금

사실상 국회에 '연금개혁 전쟁' 선포 각당 임시국회 재상정...처리는 난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해 연금 개혁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급중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 가급적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우선 양당 모두 지난번 본회의에 상정됐던 각자의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소관 상임위원 복지위에서부터 양당간 치열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냈고, 한나라-민노당의 수정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안을 도입하는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사실상 기초노령연금제에 가까운 내용까지 포함했다.

만약 상반기 내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대선 정국을 의식한 각당이 '민간한 이슈인' 연금 개혁 논의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모임의 경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대선 이후에 국

민연금 문제를 다루자는 유보적 입장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공조 파트너'였던 민노당이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 고민거리다.

민노당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연금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한나라-민노 수정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조율된 수정안을 포기하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 쪽을 넓히는데 목적을 둔 자당의 원안으로 회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당이 신당모임-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표 대결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뤄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당은 신당모임, 민주당과의 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먼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시민 복지 사의 표명

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 중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내가 미워 부결 시켰다면...”

절묘한 역공, 공은 다시 국회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혁이 각 정당간 절충을 통해 이달 안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장관직 사의 표명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연금 개혁안의 조기 성사를 거듭 촉구했다.

◇왜 사의 표명했나=유 장관은 “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사안의 성격상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 부결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 재정사고”라고 잘라 말했다. 원래 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혜택을 100을 줄이고 10을 늘리자는 것인데, 100을 줄이는 것은 없애지고 10을 늘리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2000년 생 아들이 47살이 되면 연금 기금이 고갈돼 버린다. 그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금이 고갈될 때쯤이면 90세가 된다. 하지만 연금은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으니 원래부터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장관직을 사퇴해서라도) 연금 개혁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반공과 유 장관의 거취는 =유 장관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을 했다고 한다.

유 장관의 사의표명에 노 대통령은 “그 뜻은 알겠다. 연금 개혁을 바로잡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장관 거취는 더 생각해 볼 테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약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할 일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장관직 사퇴 이후 정치 행보를 놓고서는 “지금 그런 것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을 잘못해 큰 일을 쳐놓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연금을 피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들의 할렐루야. 이명박 전 서울시장(왼쪽부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07 한국교회부활절연합 예배'에 나란히 앉아 있다. 한나라당 빅 3인 이 전시장과 반 전 대표, 손 전 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달만이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쟁점과 각당 전략

한미 FTA 치열한 공방 예고

4년 연임제 개헌안·대북정책·국민연금법 개정 등 쟁점

9~11일 진행될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대북정책,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후속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취임 이후 '정식 신고식'을 치르는 데뷔무대인 만큼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와 '반(反) FTA' 정파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질의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번에는 노 대통령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해주고 협상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농업을 비롯해 방송·통신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 현 시점의 개헌 발의가 정략성을 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헌안 발의시 부결시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비밀 대북접촉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강조하고 대선을 앞둔 남북정상회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논란을 거듭해 온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는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질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무작정 '정부 감싸기'로 가지 않고 철저한 검증의 자세로 FTA 문제에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상임위원 점검결과, 세부적인 FTA 타결 내용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측의 성실한 자료 공개와 이에 대한 분야별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개헌문제에 대해선 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반도 해빙무드와 맞물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당 정책기초에 대법 사과 등을 통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13 북핵합의의 신속한 이행과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기로 했다.

또 3월 국회에서 의외의 부결사태를 보여준 이른바 평가 받는 '병인론(病因論)'은 현재 수많은 한의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병인론(病因論)'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대한병인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한의사만이 병인한의원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인한의원은 고객님들의 건강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과 의무감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한의사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인한의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신당모임·민주당·민노당=한나라당, 우리당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후속대책 점검이 초점이다.

통합신당모임은 정치분야 강부균, 경제분야 변재일, 사회문화분야 노용래 의원을 공격수로 내세워 농업과 제약 등 한미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대책을 꼼꼼히 따진다는 전략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과 지방 중소건설업 지원 등 지방경기 활성화의 필요성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임기 말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정부에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병인한의원 광주북구점

병의 원인을 찾아 병을 치료한다

병인한의원은 병의 원인인 '병인(病因)'을 찾아내어 근본부터 치료하는 한의원입니다.

저희 병인한의원은 대한병인학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병의 원인을 중심으로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포항 등 전국 20여 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병인한의원은 특별합니다. 수많은 한의사들 중에서 오직 1%소수만이 '병인한의원'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인한의원'의 치료는 병의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이론인 '병인론(病因論)'에서 출발합니다.

동의보감 이후 한의학의 새 지평을 보여준 이론이란 평가를 받는 '병인론(病因論)'은 현재 수많은 한의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병인론(病因論)'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대한병인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한의사만이 병인한의원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인한의원은 고객님들의 건강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과 의무감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한의사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인한의원'이 되겠습니다.

병인한의원 치료의 장점

1 치료효과가 뛰어나며 신속합니다. '병인한의원'에서는 병의 핵심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므로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신속하며 기간이 단축됩니다. 원인은 하나일지라도 그에 따른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며, 하나 하나의 증상을 소멸시키는 것으로는 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면 수많은 증상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병인한의원은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니라 뿌리에 해당하는 병인을 찾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한의원입니다.

2 예방치료가 가능합니다.

- 한의학에서 최고의 경지는 '미병이치지(未病而治之)'입니다. 즉,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이때가 예방치료를 시작해야 할 최적기입니다.

3 치료의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 '병인한의원'에서는 고객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 한분 한분마다 병의 원인과 체질을 고려하여 맞춤형 한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4 치료효과가 지속적입니다.

- 병은 재발할 경우 치료기간이 2~3배 가량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한의원'에서는 고객님들의 병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합니다. 더불어 병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을 찾아내고 교정함으로써 병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5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Total Care(종합 치료)가 가능합니다.

- 수만가지 병들도 저마다 핵심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인한의원'의 치료는 수많은 질병들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Total Care(종합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인치료가 우수한 질환

1 만성 요통 동의보감에서는 요통의 원인을 10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요통의 원인을 고려하여 치료합니다.

2 소아 잦은 배앓이 · 감기 · 코피, 식욕부진 등이 있는 아이의 병인을 찾아 치료하여 건강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3 비염과 축농증 만성적인 비염과 축농증에서 각각의 병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4 만성 피로 및 체력 부족 피로를 제거하고 기력을 강화하

는 공진단, 귀룽탕, 경옥고 등의 한약을 처방하여 체력을 개선해드립니다.

5 한방다이어트

식욕을 억제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한약과 지방분해제를 통해 1개월에 자기체중의 7~10%정도씩 감량합니다.

병의 원인을 지킴은 병인한의원

홈페이지

www.bimedi.com 또는 www.병인한의원.com (주최자는 건물뒀땀 천재이카데미 입구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상담문의

병인한의원 광주북구점 인형민 원장 062)573-9777 광주광역시 북구 마곡동 39-4 도원빌딩 3층 (매곡동 삼성아파트 정문앞)

찾아오시는길

